

2024.09.16



워싱턴 통상정보



美-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점검

이후권 과장(wg.lee@kita.or.kr)

2019년 이후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최근 중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대한 미국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금년 8월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미국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 강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향후 美대통령 선거 결과 및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美-베트남 무역 및 베트남의 투자유치

① 미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 미국과 베트남간 무역이 201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금년 1~7월 기준 베트남이 미국의 수입대상국 중 7위, 수출대상국 30위를 차지

○ (수입)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은 2014년 306억 달러에서 2023년 1,144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2009년(-4.7%) 및 2023년(-10.3%)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시현

- 베트남이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3%에서 금년 4.0%까지 확대

- 미국의 수입국 중 베트남은 2014년 15위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3년부터 7위 유지

* 주요 수입국 순위(2024.1~7월): 1위 멕시코(15.7%), 2위 캐나다(13.0%), 3위 중국(12.9%), 4위 독일(5.1%), 5위 일본 (4.7%), 6위 한국 (4.2%)

○ (수출) 미국의 對베트남 수출도 2014년 57억 달러에서 2023년 9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미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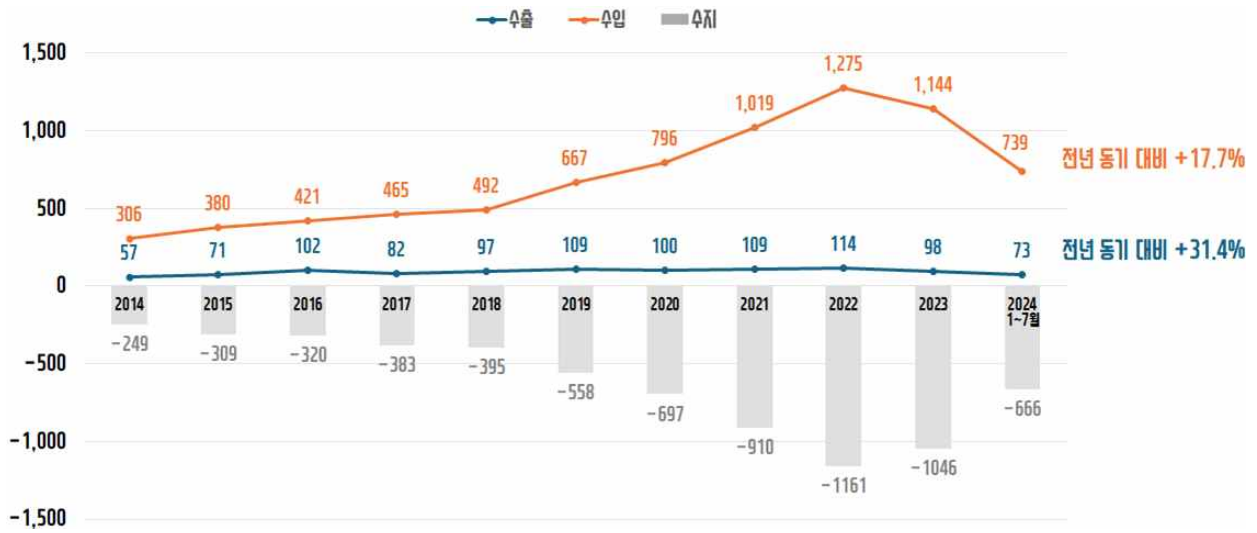
- 미국의 수출 대상국에서 베트남은 30위를 차지(전년 대비 5순위 상승)

○ (수지)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는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적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하기 시작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에서 베트남은 중국 및 멕시코 다음으로 3위를 차지

< 미국의 베트남 무역 추이 >

(단위: 억 달러)



자료: K-Stat 한국무역협회

② 미국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 최근 미국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전자·정보통신기기이며, 전체 수입에서 30% 가량을 차지

○ 컴퓨터 및 반도체 수입은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품목이었던 휴대폰 및 부품은 2023-24년 연속 감소세를 시현

○ 전자·정보통신기기 이외에 의류, 신발, 가구와 같은 소비재가 꾸준히 상위 수입품목에 포함

< 2024.1~7월 미국의 베트남 수입 10대 품목 >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 순위 | HS 4단위 | 품목명 | 2022 | | 2023 | | 2024.1~7월 | |
|-----|--------|-----------------|-------|------|-------|-------|-----------|-------|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1 | 8471 | 컴퓨터 및 부품 | 36 | 18.6 | 94 | 160.5 | 90 | 114.7 |
| 2 | 8517 | 휴대폰 및 부품 | 242 | 39.7 | 190 | -21.5 | 71 | -35.0 |
| 3 | 8541 | 반도체 | 36 | 68.6 | 51 | 42.1 | 44 | 51.6 |
| 4 | 9403 | 가구와 그 부분품 | 83 | 16.3 | 61 | -25.8 | 40 | 16.6 |
| 5 | 9401 | 의자와 그 부분품 | 42 | -5.1 | 38 | -9.7 | 27 | 27.3 |
| 6 | 8473 | 사무용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 | 36 | 30.5 | 23 | -35.2 | 26 | 154.8 |
| 7 | 8518 | 마이크로폰 및 확성기 | 41 | 5.0 | 33 | -19.1 | 23 | 58.8 |
| 8 | 6404 | 신발류(섬유 갑피) | 50 | 45.6 | 31 | -38.4 | 20 | 8.8 |
| 9 | 6403 | 신발류(가죽 갑피) | 39 | 51.2 | 32 | -20.0 | 19 | 13.5 |
| 10 | 8525 | 방송용 송신기기 | 19 | 40.5 | 20 | 6.6 | 13 | 16.3 |
| 전품목 | | | 1,275 | 25.1 | 1,144 | -10.3 | 739 | 17.7 |

자료: K-Stat 한국무역협회

[참고] 수입품의 구성 변화

- 미국의 베트남 주요 수입품은 2000년대 식품 위주에서 2010년 경공업 제품, 그리고 2020년에는 전자·정보통신기기(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로 변화
- (2000년) 석유 및 신발류를 제외하면 상위 10대 수입품목 모두 신선 및 가공식품이 차지
 - 미국의 베트남 전체 수입금액(8.2억 달러) 중 **갑각류**(1.9억 달러), **커피**(1.1억 달러), **석유와 역청유**(0.9억 달러)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0년) 식품이 주를 이루었던 2000년과 달리 가구, 의류, 신발류 등 경공업 제품이 주요 수입품목으로 자리매김
 - 전체 수입금액(148.7억 달러)에서 1위 품목은 **가구**(15.0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2위~7위는 **의류** 또는 **신발류**가 차지
 - 2000년도 1위 품목이었던 **갑각류**(4.1억 달러)는 8위, 2위 품목 **커피**(3.7억 달러)는 10위 기록
 - (2020년) 상위 10대 수입품목에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이 새롭게 등장
 - **무선통신기기**(132.2억 달러), **가구**(60.7억 달러), **의자**(32.2억 달러)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상위 10대 수입품목에 **가구**, **의자**, **의류**, **신발류**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으나, 20년 전 호조세를 보였던 식품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감

< 미국의 베트남 상위 10대 수입품목 변화 >

(단위: 억 달러)

| 순위 | 2000년 | | 2010년 | | 2020년 | |
|----|--------------------|------------|---------------------|--------------|--------------------|--------------|
| | 품목명 | 금액 | 품목명 | 금액 | 품목명 | 금액 |
| 1 | 갑각류 | 1.9 | 가구와 그 부분품 | 15.0 | 무선통신기기 | 132.2 |
| 2 | 커피 | 1.1 | 의류(저지, 폴오버, 카디건 등) | 12.7 | 가구와 그 부분품 | 60.7 |
| 3 | 석유와 역청유 | 0.9 | 여성의류 | 9.2 | 의자와 그 부분품 | 32.2 |
| 4 |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 0.6 | 신발류(가죽 갑피) | 8.1 | 신발류(섬유 갑피) | 28.6 |
| 5 | 신발류(가죽 갑피) | 0.5 | 신발류(고무 또는 플라스틱 갑피) | 5.6 | 전자직접회로 | 25.2 |
| 6 | 견과류(코코넛, 캐슈넛 등) | 0.5 | 여성의류(편물 한정, 수영복 제외) | 5.1 | 반도체 | 24.2 |
| 7 | 신발류(고무 또는 플라스틱 갑피) | 0.4 | 남성의류 | 4.8 | 의류(저지, 폴오버, 카디건 등) | 23.4 |
| 8 | 어류의 필레 또는 기타 어육 | 0.3 | 갑각류 | 4.1 | 신발류(가죽 갑피) | 23.3 |
| 9 | 신발류(섬유 갑피) | 0.3 | 석유와 역청유 | 4.1 | 마이크로폰 및 확성기 | 22.3 |
| 10 | 후추 및 고추 | 0.2 | 커피 | 3.7 | 자동자료처리기계 | 20.9 |
| | 전품목 | 8.2 | 전품목 | 148.7 | 전품목 | 796.5 |

자료: 美 통계국(US Census Bureau)

③ 베트남의 투자유치 동향

□ 1988년~2024.8월 기간 누적 기준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누적 투자금액이 877.8억 달러를 기록

○ 한국 다음으로 싱가포르(807.0억 달러), 일본(792.7억 달러), 중국(659.5억 달러), 대만(404.8억 달러) 순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

< 1988년~2024.8월 국가별 對베트남 FDI 누적 금액 및 전체 건수 >

(단위: 건, 억 달러)

| 순위 | 국가 | 누적 투자 건수 | 누적 투자 금액 |
|----|------------------|----------|----------|
| 1 | 한국 | 10,048 | 877.8 |
| 2 | 싱가포르 | 3,792 | 807.0 |
| 3 | 일본 | 5,420 | 792.7 |
| 4 | 중국 ¹⁾ | 7,543 | 659.5 |
| 5 | 대만 | 3,218 | 404.8 |
| 전체 | | 41,142 | 4,913.9 |

1) 홍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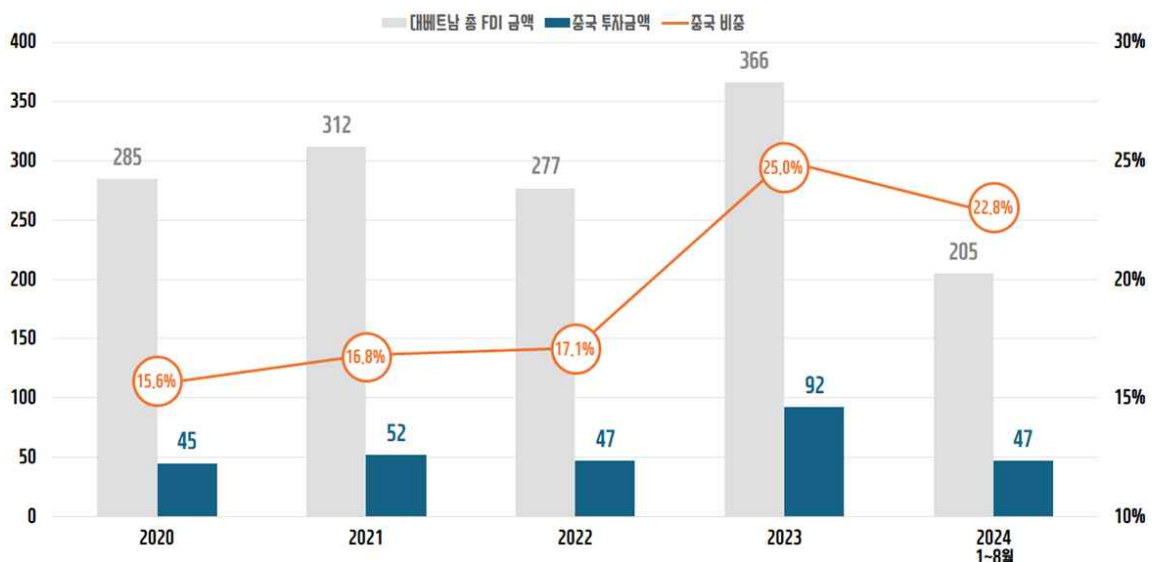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 한편, 최근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는 투자 건수(1,022건) 및 금액(91.5억 달러) 기준 모두 중국이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기록됨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조치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 중 이미 제조업 기반이 갖추어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

< 중국의 對베트남 FDI 신고 금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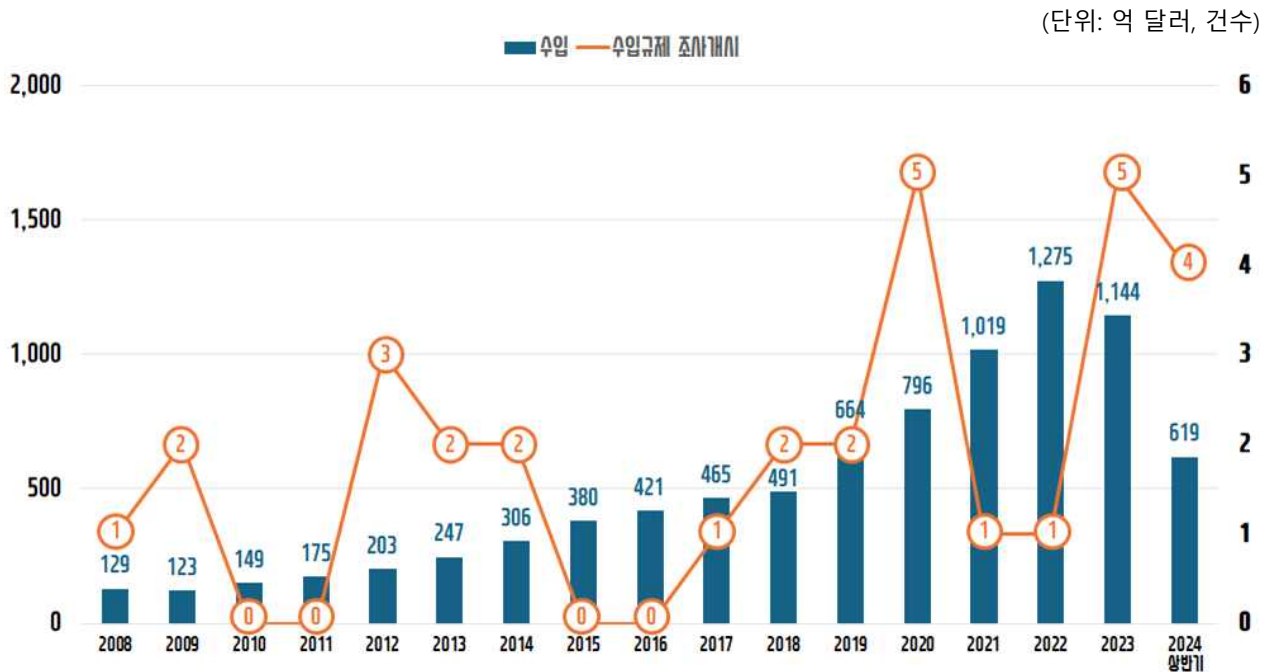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II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 동향

- 미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특히 2020년 이후 두드러짐
-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무역규제 신규 조사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2020년과 2023년에는 각각 총 5건(반덤핑4건, 상계관세1건)의 조사가 개시
-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22년간 베트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33건에 달함
-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은 생꿀, 종이 쇼핑백, 매트리스 등 일상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며, 다수 품목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제소 대상 품목의 특성상 해당 피제소 베트남 기업들이 미국의 무역규제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경우, 무대응 또는 대응 미비로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적용되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또한 베트남이 미국에서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덤핑 마진 산정시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높게 산정됨

<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 및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추이 >



자료: 美 통계국(US Census Bureau), 美 상무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의 對베트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 분류 | 품목 | 조사개시일 | 現 조사현황 | 최소~최대마진 |
|------|----------------------|------------|---------------------|-----------------------------------|
| 반덤핑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 2024.5.14 | ITC, 산업피해: 긍정 | - |
| | 특정 종이 접시 | 2024.2.14 | | |
| 상계관세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 2024.5.14 | 상무부, 예비판정(원심) | 5.48%~237.65%(AFA ¹⁾) |
| | 특정 종이 접시 | 2024.2.14 | | |
| 반덤핑 | 알루미늄 압출재 | 2023.10.24 | 상무부, 예비판정(원심) | 2.85%~41.84%(AFA) |
| | 종이 쇼핑백 | 2023.6.20 | | 36.51%~92.34%(AFA) |
| | 강철 볼트리스 선반 | 2023.5.15 | 상무부, 최종판정(원심) | 181.60%(AFA) |
| | 고압세척기 | 2023.1.19 | | 225.65%(AFA) |
| 상계관세 | 냉동 온수성 새우 | 2023.11.14 | 상무부, 예비판정(원심) | 2.84%~196.41%(AFA) |
| 반덤핑 | 종이 파일 폴더 | 2022.11.8 | 상무부, 최종판정(원심) | 97.52%~233.93%(AFA) |
| 반덤핑 | 생꿀 | 2021.5.11 | 상무부, 예비판정(재심) | 60.03%~154.47% |
| 반덤핑 | 보행형 잔디깎기 및 부품 | 2020.6.15 | 상무부, 최종판정(원심) | 148.35%~176.37%(AFA) |
| | 매트리스 | 2020.4.20 | | 144.92%~668.38%(AFA) |
| | 폴리에스터 질감사 | 2020.11.17 | | 2.58%~22.36%(AFA) |
| | 무용접 정제 구리 파이프 및 튜브 | 2020.7.20 | | 8.35% |
| 상계관세 | 타이어 | 2020.6.22 | 상무부, 최종판정(재심) | 1.34% |
| 반덤핑 | 풍력타워 | 2019.7.29 | 상무부, 최종판정(원심) | 65.96%(AFA) |
| 상계관세 | | 2019.7.29 | | 2.84% |
| 반덤핑 | 라미네이트 직조 자루 | 2018.3.28 | 상무부, 최종판정(원심) | 109.46%~292.61%(AFA) |
| 상계관세 | | 2018.3.28 | | 3.02%~198.87%(AFA) |
| 반덤핑 | 공구함 및 캐비닛 | 2017.5.1 | 상무부, 일몰재심(지속) | - |
| 반덤핑 | 강철 못 | 2014.6.25 | 상무부, 일몰재심(지속) | - |
| 상계관세 | | | | |
| 반덤핑 | 유정용 강관 | 2013.7.29 | 상무부, 최종판정(재심) | 1.49% |
| |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 2013.6.12 | 상무부, 예비판정(재심) | 16.25%~144.51%(AFA) |
| 반덤핑 | 풍력타워 | 2012.1.24 | 상무부, 일몰재심(지속) | - |
| 반덤핑 | 철사 옷걸이 | 2012.1.25 | | |
| 상계관세 | | | | |
| 반덤핑 | 폴리에틸렌 소매용 쇼핑백 | 2009.4.27 | 상무부, 일몰재심(지속) | - |
| 상계관세 | | | | |
| 반덤핑 | 커버 없는 내부 스프링 | 2008.1.28 | 상무부, 최종판정(재심) | - |
| 반덤핑 | 냉동 온수성 새우 | 2004.1.27 | 상무부, 최종판정(재심) | 25.76% |
| 반덤핑 | 냉동 생선 필레 | 2002.7.24 | 상무부, 최종판정 (신규수출자재심) | - |

주)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자료: 美 상무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II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① 미국의 베트남 비시장경제국 지위 지정

□ 2002년 美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이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베트남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

○ 당시 △환율시장, 임금 결정 등에 대한 정부 개입, △FDI 관련 정부 규제, △국영기업의 더딘 민영화, △정부의 토지 소유권 및 통제권 등이 판단 근거

[참고] 비시장경제 지위란?

□ (정의) 美 관세법(Tariff Act of 1930)¹⁾에서 생산비용 및 가격구조가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상품 판매가격이 공정히 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NME*)로 지정

* Non-Market Economy country

□ (기준) 동 법은 비시장경제 판단 요소로 ①해당국 통화의 태환성, ②노사 간 자유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 ③외국인 투자 및 합작기업 제한, ④정부의 생산수단 통제, ⑤자원 배분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⑥기타 판단 요소 등 여섯 가지 기준을 규정

□ (효과) 비시장경제로 분류된 국가는 덤핑마진*이 평균적으로 높게 산정

* 통상적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차이

○ 정상가격 산정시 비시장경제로 지정된 국가의 국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3국의 판매가격 또는 생산원가와 이윤으로 美 상무부가 자체 산출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적용하기 때문에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큼

- 2015년 이후 개시된 반덤핑조사에서 적용된 평균 덤핑마진은 시장경제국은 9.16%인 반면, 비시장경제국이 36.75%. AFA²⁾ 적용 사례의 경우 시장경제 52.28%, 비시장경제국 230.45%로 격차가 더욱 확대

□ (지정현황) 8월 현재 중국, 러시아, 베트남,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

② 지위 변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건수 증가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자국의 무역 지위 재검토를 美 상무부에 요청(2023.9.8)³⁾

○ 베트남 정부는 시장경제 전환 및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강조하며 시장경제국으로의 지위 변화를 기대

1)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링크](#))

2)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율을 산정토록한 규정

3) 2023.9.8.,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서한 ([링크](#))

- 1986년 경제 개혁·개방 정책 「도이 머이(Đổi mới)」를 통해 탈중앙화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2007년 WTO 가입 등 지속적인 경제체제 전환 노력을 설명
- 특히, 2022년 5월 미국이 주도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 선언 하여 미-베 경제적 연대 강화 및 공정·자유 무역을 위한 노력을 피력함
- 미국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한 2023.9월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⁴⁾에서 베트남의 무역 지위 재검토 의향을 밝힘
- 당시 베트남은 미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는 여타 국가보다 베트남이 보다 시장경제에 가까운 구조이며, 미국의 여러 동맹국이 자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
 -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 지원 수준은 인도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허용의 경우 인도네시아, 캐나다, 필리핀보다 개방적임
 - 특히 한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72개국이 베트남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

③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관련 미국내 의견

- 베트남의 무역 지위 재검토 요청 직후 미국내에서는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으로 갈라짐
- (찬성)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업(특히 의류) 관련 단체*가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격상을 지지
 - * △주베트남 美 상공회의소, △미국-아세안 기업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 △전미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 △전미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美 주정부농무성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 등
- (반대) 반면 철강업 및 노동계*가 관세율 인하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대립
 - *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철강제조업협회(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뉴코어 코퍼레이션(Nucor Corporation), △전미철강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미국제조업연맹(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미국 철강 및 벌꿀 생산업체 등
- 특히 미국 철강협회(AISI)는 의견서⁵⁾를 통해 미국 무역법을 회피하고 환율 조작 및 제한적 무역 관행을 지속하는 국가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할 경우, 미국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중국에 더욱 유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

4) 2023.9.11., 미국-베트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링크](#))

5) 2023.12.21., 미국철강협회(AISI) 의견서 ([링크](#))

- 동 의견서는 베트남이 철강,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납, 아연 등에 고율의 수출 관세 (export tax)*를 부과 중이며, 이는 베트남 정부의 자원 가격 통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
 - * 베트남 정부는 전략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철강 40%, △니켈,코발트, 알루미늄, 납, 아연 22%, △석탄 10~15% 등의 수출 관세를 부과 중
- 또한 베트남 전체 GDP의 33%을 차지하는 국영기업(2,200여 개)에 베트남 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며, 2023년 美 재무부는 베트남을 환율조작 대상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강조
- 이와 관련 일부 공화당 연방의원이 베트남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美 상무장관에 전달
 - JD Vance(R-OH), Josh Hawley(R-MO), Tom Cotton(R-AR) 상원의원은 베트남이 시장경제 지위를 얻으면 미국의 무역 및 국가안보 관련 법률 집행이 어려워지고, 국내 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⁶⁾

“Vietnam to market economy status would weaken the enforcement of U.S. trade and national security laws, embolden and advantage the Chinese and Vietnamese communist parties, and hurt American industries and their workers.” (2023년 12.11일 JD Vance(R-OH), Josh Hawley(R-MO), Tom Cotton(R-AR) 공화당 상원의원 서한 중)

- Michelle Steel(R-CA) 하원의원 역시 베트남 정부의 시장개입 수준이 강해 여전히 시장경제국 지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⁷⁾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Vietnam’s Communist government still has strong control over its economy and should not qualify as a market economy.” (2024년 7.19일 Michelle Steel(R-CA) 하원의원 서한 중)

④ 美 상무부,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유지 결정

□ 지난 8.1일, 美 상무부는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유지 결정을 발표⁸⁾

- 동 결정은 2023년 9월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베트남산 생꿀(raw honey)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 자국의 지위를 변경하는 상황변동재심(CCR*)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임
 - *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 베트남이 2002년부터 추진한 시장 지향적(market-oriented) 개혁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관세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정

6) 2023.12.11., Vance, Hawley, Tom Cotton 공화당 상원의원의 베트남 시장경제 지위 반대 서한 ([링크](#))

7) 2024.7.19., Michelle Steel 공화당 하원의원의 베트남 시장경제 지위 반대 서한 ([링크](#))

8) 2024.8.1,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 관련 美 상무부의 재검토 결과 원문([링크](#))

- 상무부는 여섯 가지 비시장경제 판단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베트남 수출품 가격 및 생산 비용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왜곡되어 덤핑마진 산출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평가
 - ① (통화 태환성) 베트남 중앙은행은 독립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기관의 환율 시장 개입은 베트남 동화(VDN)의 가치를 왜곡시킴
 - ② (시장 주도적 임금 결정) 베트남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이 노동조합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③ (외국인 투자 허용) 높은 시장진입 장벽, 정부의 기업 통제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제한적임
 - ④ (정부의 생산수단 통제) 생산수단 및 토지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통제가 만연함
 - ⑤ (자원 배분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자원 배분에 대한 정부 개입뿐만 아니라 가격 통제로 베트남 시장 내 최종 가격이 왜곡되어 있음
 - ⑥ (기타) 베트남 공산당 개입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저해됨

III 시사점

-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적자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려 및 경계의 목소리가 등장
 - Economist Intelligence Unit⁹⁾는 트럼프 前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이어 베트남이 무역 정책 변화에 가장 크게 노출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내 베트남 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됨
 -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對美 수출이 증가할수록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美 상무부는 베트남의 비시장 경제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
 - 이번 결정은 베트남의 상황이 평가 기준에 못 미친 점 이외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對베트남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베트남이 멕시코 만큼 중국의 우회 기지로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베트남 관련 언론 보도 및 美정계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함

9) EIU(2024. 7.10.). *Trump Risk Index: the global impact of a new US presidency* ([링크](#))

참고1

미국-베트남 무역 동향

< 미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월별 동향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23년 1~7월 | | | | | 2024년 1~7월 | | | | |
|-----|------------|-------|--------|-------|--------|------------|------|--------|------|--------|
| | 수출 | | 수입 | | 수지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베트남 | 56 | -19.5 | 628 | -15.7 | -573 | 73 | 31.4 | 739 | 17.7 | -666 |
| 전체 | 11,648 | -1.8 | 17,766 | -6.3 | -6,117 | 11,993 | 3.0 | 18,557 | 4.5 | -6,563 |

| 구분 | 2024년 월별 對베트남 수출입 | | | | |
|----|-------------------|-------|-----|------|------|
|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1월 | 8 | 10.7 | 95 | 3.3 | -87 |
| 2월 | 9 | 6.2 | 96 | 15.5 | -87 |
| 3월 | 10 | 7.6 | 100 | 21.2 | -90 |
| 4월 | 8 | 0.7 | 100 | 16.9 | -92 |
| 5월 | 9 | 7.6 | 113 | 23.2 | -104 |
| 6월 | 10 | 33.6 | 115 | 24.3 | -105 |
| 7월 | 19 | 172.6 | 120 | 19.5 | -101 |
| 합계 | 73 | 31.4 | 739 | 17.7 | -666 |

자료: K-Stat 한국무역협회

< 미국의 상위 10대 수출입국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 순위 | 수출 국가 | 2023년 | 2024년 1~7월 | | 수입 국가 | 2023년 | 2024년 1~7월 | |
|-----|----------|-------------------|------------------|-------------------|----------|-------------------|------------------|-------------------|
| | | 수출금액 (증감률) | 수출금액 (증감률) | 비중 (전년비) | | 수입금액 (증감률) | 수입금액 (증감률) | 비중 (전년비) |
| 1 | 캐나다 | 3,528 (-0.6%) | 2,055 (-0.4%) | 17.1% (-0.3%p) | 멕시코 | 4,756 (4.5%) | 2,910 (5.8%) | 15.7% (0.3%p) |
| 2 | 멕시코 | 3,232 (-0.4%) | 1,957 (4.7%) | 16.3% (0.3%p) | 캐나다 | 4,211 (-3.8%) | 2,417 (-0.8%) | 13.0% (-0.6%p) |
| 3 | 중국 | 1,478 (-3.9%) | 824 (-1.0%) | 6.9% (-0.4%p) | 중국 | 4,272 (-20.4%) | 2,392 (0.1%) | 12.9% (-1.0%p) |
| 4 | 네덜란드 | 822 (12.8%) | 504 (5.9%) | 4.2% (0.1%p) | 독일 | 1,597 (8.9%) | 945 (1.3%) | 5.1% (-0.1%p) |
| 5 | 일본 | 762 (-5.2%) | 465 (6.3%) | 3.9% (0.1%p) | 일본 | 1,473 (-0.7%) | 864 (3.1%) | 4.7% (-0.1%p) |
| 6 | 영국 | 741 (-4.2%) | 453 (3.3%) | 3.8% (0.1%p) | 한국 | 1,162 (0.8%) | 787 (18.8%) | 4.2% (0.5%p) |
| 7 | 독일 | 767 (5.2%) | 440 (-1.2%) | 3.7% (-0.1%p) | 베트남 | 1,144 (-10.3%) | 739 (17.7%) | 4.0% (0.3%p) |
| 8 | 한국 | 648 (-9.3%) | 389 (8.4%) | 3.2% (0.0%p) | 대만 | 878 (-4.5%) | 638 (32.4%) | 3.4% (0.6%p) |
| 9 | 브라질 | 448 (-16.4%) | 278 (5.7%) | 2.3% (0.1%p) | 아일랜드 | 823 (0.3%) | 546 (14.5%) | 2.9% (0.3%p) |
| 10 | 싱가포르 | 424 (-8.1%) | 267 (13.4%) | 2.2% (0.1%p) | 인도 | 838 (-2.2%) | 517 (5.9%) | 2.8% (0.1%p) |
| 전세계 | | 20,192 (-2.1%) | 11,993 (3.0%) | 100% | 전세계 | 30,841 (-5.0%) | 18,557 (4.5%) | 100% |

자료: K-Stat 한국무역협회

참고2 국가별 베트남 투자금액 및 건수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4년 1~8월

| 순위 | 국가 | 신규 투자 | | 추가 투자 | | 자본출자 및 자본기여 | | 총 신고금액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2024년 1~8월 | 전년 동기 대비 |
| 1 | 싱가포르 | 314 | 46.6 | 103 | 15.3 | 218 | 6.0 | 67.9 | +77.1% |
| 2 | 중국 ¹⁾ | 898 | 31.1 | 244 | 13.5 | 382 | 2.2 | 46.8 | +11.3% |
| 3 | 일본 | 174 | 12.4 | 101 | 4.7 | 140 | 8.1 | 25.2 | -2.5% |
| 4 | 한국 | 276 | 5.6 | 227 | 9.4 | 568 | 3.5 | 18.4 | -25.0% |
| 5 | 대만 | 128 | 6.6 | 74 | 4.9 | 183 | 1.9 | 13.4 | +11.2% |
| 전체 | | 2,247 | 120.0 | 926 | 57.1 | 2,196 | 28.1 | 205.2 | +13.1% |

2023년 1~12월

| 순위 | 국가 | 신규 투자 | | 추가 투자 | | 자본출자 및 자본기여 | | 총 신고금액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2023년 1~12월 | 전년 동기 대비 |
| 1 | 중국 ¹⁾ | 1,022 | 69.6 | 286 | 19.1 | 503 | 2.9 | 91.5 | +93.1% |
| 2 | 싱가포르 | 410 | 37.7 | 153 | 8.3 | 349 | 22.0 | 68.0 | +5.4% |
| 3 | 일본 | 302 | 28.6 | 144 | 7.7 | 230 | 29.4 | 65.7 | +37.3% |
| 4 | 한국 | 472 | 18.4 | 327 | 21.6 | 961 | 4.0 | 44.0 | -9.8% |
| 5 | 대만 | 210 | 22.5 | 103 | 3.511 | 235 | 2.9 | 28.8 | +113.4% |
| 전체 | | 3,188 | 201.9 | 1,262 | 78.8 | 3,451 | 85.4 | 366.1 | +32.1% |

1) 홍콩 포함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 >

(18) NONMARKET ECONOMY COUNTRY.—

(A) **IN GENERAL.**—The term “nonmarket economy country” means any foreign country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does not operate on market principles of cost or pricing structures, so that sales of merchandise in such country do not reflect the fair value of the merchandise.

(B) **FACTORS TO BE CONSIDERED.**—In making determinations under subparagraph

(A)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 (i) the extent to which the currency of the foreign country is convertible into the currency of other countries;
- (ii) the extent to which wage rates in the foreign country are determined by fre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 (iii) the extent to which joint ventures or other investments by firms of other foreign countries are permitted in the foreign country,
- (iv) the extent of government ownership or control of the means of production,
- (v) the extent of government control ov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over the price and output decisions of enterprises, and
- (vi) such other factors as the administering authority considers appropriate.